

전남

여주시-산단 손잡고 지역인재 키운다

‘맞춤형 인력양성’ 협약식... 내년 2월까지 교육생 20명 모집

여주시와 여수국가산업단지 지역인재의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 손잡고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한다.

여주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여수산단내 지역업체를 대표하는 관계자들과 32개 업체들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현섭 여주시장은 비롯하여 여주시의회, 여수상공회의소, 여수산업단지협회, 여수경영인협회, 여수중소기업협회 외에 학계, 정부기관, 기업체 대표들이 참석

해 지역생성의 협력사업에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양성사업은 내년 2월까지 교육생을 모집, 3월부터 6개월 과정의 교육에 들어간다. 1기 교육생은 올해 고교 졸업자 가운데 20명을 선발한다. 시는 2011년부터 연간 2기 40명으로 교육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수진은 외부 전문가와 여수산단내 실무진으로 꾸려 각 업체들이 특성에 맞는 직원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교육생들은 기술 및 사무교육에서부터 인성과 적성, 조직

문화, 리더십 등에 대한 교육을 마친 뒤 여수산단내 각 업체에 취업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시는 여수산단내 근로환경 만족도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지역출신 인재들의 취업률이 저조하다고 판단,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난해 2월부터 관계기관 모임을 가져왔다.

시는 이번 사업에 따라 맞춤형 우수 산업인력을 양성, 지역사회와 여수산단간 공동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오현섭 여주시장은 “산단과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의 협력체제 구축을 모색하던 중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여수산단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송광사·선암사 일원’ 사적·명승 분류 지정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돼 있는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이 사적과 명승으로 나눠 지정됐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은 지난 1975년 9월 2일 ‘명승 제 5호 승주 송광사 선암사 일원’으로 지정됐다가 1998년 12월 23일 사적 및 명승 제 8호로 재분류됐으며,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를 위해 사적과

명승으로 나눠 지정했다. 재분류된 사적 구역은 송광사 경내지와 선암사 경내지이며, 송광사 선암사 일원 2천234만612㎡는 명승지역으로 분류됐다.

문화재청이 사적과 명승으로 재분류한 것은 각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됐던 전국 10개소의 유적은 문화재지정종별에서 삭제됐다.

순천시시는 이번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의 문화재 종별 분류에 따른 사적 2개소, 명승 1개소의 유적이 추가돼 124점(국가지정 64점, 도지정 60점)의 지정문화재로 분류하게 됐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이석형 함평군수 蘭 문화대상 수상

이석형 함평군수가 제 19회 난 문화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난 문화협회가 주관한 난문화대상 시상식은 최근 함평 엑스포공원에 금호아시아나관에서 열렸다.

이 군수는 지난 1997년부터 함평난우회가 주최하는 한국난전시회를 적극 지원했으며, 2004년에는 이 전 시회를 전국단위 난 단체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난평택제전’으로 격상시켰다. 특히 대상 훈격이 장관상에 머물던 것을 올해 국무총리상으로 높였고, 국내 유일의 난 공원을 조성하는 등 함평을 한국난의 중심지로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함평=함평기자 hwang@



친환경 보성쪽파 수확 현장

최근 보성군 회천·득림면 일원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재배한 쪽파 수확이 한창이다. 올해 870여 농가가 920ha에서 쪽파를 재배, 2만3천여톤을 생산해 230억원의 농가소득이 예상된다.

<보성군 제공>

목포해양대 “인천해양대 설립 안된다”

기존 해양대에 정원 증가·재정지원 확대 바람직

목포 해양대학교가 인천시의 해양대 설립 추진과 관련해 세계 해운인력 수요와 공급 원칙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목포해양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 대다수 학생이 거리가 멀어 지역 해양대학에 진학을 꺼린다”는 이유로 인천에 제3의 국립 해양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현재 목포와 부산에 있는 국립 해양

대 “중국·필리핀·베트남 등에서 매년 많은 수의 해운산업 인력이 배출되고, 국내 외국인 해사사의 승선 인원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또 다른 해양대학의 설립은 세계 해운산업 인력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무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목포해양대는 1950년 4월 개교 이후 1만5천여명의 해양 전문 인력을 배출했으며, 앞으로 20만㎡의 부지에 국제 해양교육을 선도할 교육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해군 3함대, 쌀 소비운동 앞장

524포 구입... “농민위한 다양한 지원할 터”

“해군 장병들 덕분에 작은 희망이 보입니다.” 최근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해군들이 쌀 소비촉진운동을 통해 농민들 돕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해군 제3함대 사령부(사령관 임종철 소장)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 장병과 군무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쌀 구매운동”을 펼쳐 524포대(5.11t·시가 1천200만원 상당)를 구입, 농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줬다.

3함대는 쌀 구매뿐만 아니라 식단 메뉴 편성시 국내산 쌀을 이용한 요

철 소장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 장병과 군무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쌀 구매운동’을 펼쳐 524포대(5.11t·시가 1천200만원 상당)를 구입, 농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줬다.”

3함대는 쌀 구매뿐만 아니라 식단 메뉴 편성시 국내산 쌀을 이용한 요

리 확대, 라면류 급식시 밥 추가 제공, 탄산음료를 쌀 음료로 교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쌀 소비를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민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온 3함대 군수참모 박재학(43) 중령은 “이번 국내산 쌀 소비운동으로 농민들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하다”며 “부대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로 인해 앞으로도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불우이웃에 사랑의 연탄 목포지청-피해지원센터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지청장 정성운)과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이사장 이혁영)는 지난 7일 목포시 유달동 보리마당 불우이웃에게 연탄 4천500장을 전달하는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열었다.

또 죽곡동 법과나눔 목포지부에서 노숙자와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점심을 대접하고 양말과 장갑을 나눠줬다.

정성운 지청장과 이혁영 이사장은 “이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들의 일”이라며 “앞으로도 밝고 바른 사회를 위해 사랑나눔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완도경찰, 불우이웃에 쌀 전달

완도경찰이 지역 저소득층 및 불우이웃을 위해 ‘사랑의 쌀’을 전달하는 등 훈훈한 지역사회 만들기 앞장서고 있다.

완도경찰서(서장 김재석)는 8일 관내 읍면동장과 각 마을이장 등을 초청, 사랑의 나눔쌀 10·20kg 189포대를 전달했다.(사진) 수확이 쌀값 하락 등 수급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완도

경찰 전 직원들은 어려움에 처한 지역농민들을 돕기 위해 박봉을 쪼개 심심일만으로 210여만원을 모금해 쌀을 구입했다.

김재석 서장은 “가뭄이나 불경기와 동절기에 어려움에 처한 지역 농민들과 주민들에게 훈훈한 정을 주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진기자 ejchung@

Large table containing real estate listings for various districts in Jeonnam, including Jeonju, Gwangju, and Mokpo. Columns include district, address, price, and agent information.